

농업경쟁력 향상 위한 미래농업 육성 '총력'

전주시농업기술센터, 40억6000만원 투입 5개 분야 42개 사업 추진 31일까지 농업기술과·동 주민센터서 농업기술 지원사업 신청·접수

전주시가 농업인 소득향상과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올해 총 40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이상기후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확대 등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위

한 5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논 온실가스 감축 물관리와 안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딸기 신기술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저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

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장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종성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속한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과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706~671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는 4일 주민센터 2층에서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어르신 60여명에게 새해 건강기원 떡국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새해 건강기원 떡국나눔 봉사 펼쳐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60여명에 건강·장수 기원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 새마을부녀회(회장 오현순)는 4일 주민센터 2층에서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어르신 60여명에게 새해 건강기원 떡국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새해맞이 건강기원 떡국나눔' 행사는 2024년 새해를 맞아 '함께해서 행복한 동네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는 떡국나눔 봉사 활동 이후에도 2024년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 오현순 회장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떡국나눔 봉사활동을 가질 수 있어 회원 모두에게 행

복 한 해의 시작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해서 모두가 행복한 중화산2동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태 중화산2동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중화산2동을 만들어 가는 데 새마을부녀회가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화산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독거노인 청소봉사, 김장나눔, 떡국봉사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관내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욱기 기자

훈련 갔던 아들, 투병 중인 부모 앞으로... 특별한 신병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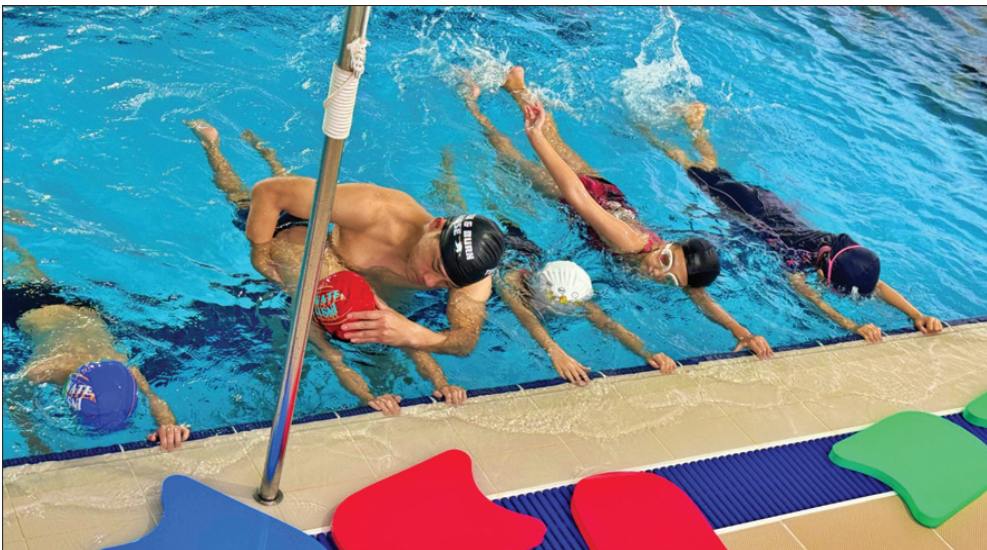
지난 3일 육군 35보병사단 훈련소에 있어야 했던 아들이 충남 천안의 료원으로 찾아왔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와 아버지는 반가움과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다. 육군 35사단 문기범 이병의 이야기다. 문 이병은 당초 이날 임실군 35보병사단 신병교육관에서 신병수료식에 홀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 이유는 문 이병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초 식도암 판정을 받아 천안의 료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문

육군 35사단 문기범 이병 가족사 듣고 특별면회 추진 이병의 어머니도 간병으로 신병수료식 참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병수료식 전 문 이병을 상담하던 35사단 박장우 상사는 이러한 가족사를 듣게 됐다. 박 상사는 사단에 문 이병을 신병수료식에 면회를 보내주기로 제안했고 사단측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그렇게 문 이병과 가족의 특별한 만남은 이뤄졌다. 갑작스럽고 예상

하지도 못했던 아들을 본 문 이병의 부모는 눈물을 보이며 꼭 껴안았다. 문 이병의 아버지는 "(아들을)보러 가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정말 (사단 배려에) 감사하다"며 "아들을 만나니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문 이병은 "소대장의 배려 덕분에 아프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육군 용사로서 군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상사는 "문 이병이 아픈 부모님을 평소에도 많이 걱정했는데 수료식 날 참석을 못하신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깨끗하게 훈련을 받았다"며 "이렇게라도 수료식 날 부모님과 마주보며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게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자 추억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

전주시설공단, 라온체육센터서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 상설 운영



라온체육센터에서 수영강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전주시설공단이 라온체육센터에서 지난 2일부터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초반 4개월 과정으로 기초영양교육과 생존수영(수상안전) 강습이 진행된다. 12세 이하 23명의 어린이가 하루 50분간 주 3회 강습을 받는다. 강습료는 1달 5만4000원이다.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되는 것은 전북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 등에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 어린이 수영특강을 운영한 적은 있으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 적은 없다. 공단은 화령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라온체육센터에 어린이 수영특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의 상설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어린이 수상 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 뿌듯하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사이버상 불법행위 엄단"

전북경찰청,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사범 105명 검거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사이버성폭력 사범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상물이 각각 15명, 허위성상물이 1명 순이었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 운영자는 물론 채널방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공받아 소지한 회원 등 47명을 검거했다. 추가로 관련된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제10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